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굿

문무병*

1. 명두(明刀) 물림과 내림굿

제주도에서는 무당을 심방이라 한다. 제주도의 심방은 세습무의 전형이다. 제주도에서 이름 있는 큰 심방은 '족보 있는 심방'으로 '영급 좋고 수덕 좋은 심방'으로 존경을 받는다. 심방은 적어도 조상으로 모시는 명두를 한 벌 이상 지니고 있으며, 명두마다 무업(巫業)을 하였던 집안에 연고가 있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 '명두 물림'이란 의식에 의해 물려받은 명두가 영험 있고 족보 있는 '조상'이어야 훌륭한 심방으로서 추앙을 받는다.

명두는 무조신(巫祖神) '젯부기 삼형제'의 이름이 '본명두', '신명두', '삼명두'이기 때문에 심방이 조상으로 모시는 신이다. 그리고 명두는 '본명두는 요령(搖鈴)', '신명두는 신칼(神刀)', '삼명두는 산판(算盤)¹⁾'으로 무구(巫具)인 '요령', '신칼', '산판'을 가리킨다.

*제주교육박물관

실제로 심방이 집안에서 조상으로 모시고 당주상(堂主床)²⁾에 보관하고 있는 명두는 바로 이 무구를 말한다. 그러므로 명두는 심방의 조상이며, 무조신의 영험이 담겨있는 증거물로서 '본메'라 하며, 이 명두를 지님으로써 비로소 심방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제주도의 심방을 세습무의 전형으로 보는 것은 '명두물림'을 통하여 대를 잇기 때문이다. 명두물림은 조상 때부터 사용하던 무구를 대를 이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의식이다.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무업의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경우, 양자를 구하여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고, 심방의 기량을 전수시킨 연후에 명두를 물려준다. 그러므로 심방이 지닌 '조상'으로서 명두는 내력을 가지게 된다. 명두물림은 강신무(降神巫)의 내림굿처럼 심방이 되는 의식으로서 치러지는 제주도의 신굿 '당주맞이'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의 사설은 당주맞이 제차 중 '고분명두'에서 잃어버린 명두를 찾고, 점치는 쇠놀림굿에서 신굿의 제주(祭主) 김윤수·이정자 심방의 명두에 대한 내력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시왕고분연질로 당쫓길 몸쫓길 바로잡아 있는데,
이 명두 조상의 뿌리는 밧명두(外明刀)³⁾는 성은 김씨로 금년은 신유생
예순 여섯 님 몸을 받은(대를 이은) 본(本)이 있습니다. 신길 바르게 잡아 준 조상 님은⁴⁾ 옛날옛적이로구나. 이승에 올라서면 김동지 영감님의 몸을 받던(대를 잇던) 삼명두이옵고⁵⁾. 이 조상은 댄 가지 뒤로 갔습니

-
- 1) 제주도의 무점구로서 낫쇠잔 두 개, 엽전 두 개와 이를 담은 낫쇠 그릇을 산판이라 한다.
 - 2) 방 귀둥이에 조그만 함을 만들어 명두(祖上)를 모신 상.
 - 3) 바깥주인 김윤수의 명두. 김윤수 씨는 무형문화재 71호 칠머리당굿 보존회장이다.
 - 4) 여기서 조상은 '명두'.
 - 5) 명두는 요령·신칼·산판 세 가지를 지칭하므로 '삼명두'라 한다.

다 마는 양씨 할마님 몸을 받던 일월 조상님네 당주삼시왕⁶⁾에 증명하니 고내리에 가면 김씨 선생 (지금) 살았으면 을묘생 몸을 받은 김씨 신길 바로잡아 이어 매어 살립니다. 삼시왕에 증명하니, 성은 김씨로 신유생 일월삼명두⁷⁾ 물려받아 초신 연길(初神路)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⁸⁾은 성은 문씨로 기묘생 몸을 받은 조상님네 들어가 초 역례⁹⁾ 초 신길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김동지 영감님 신으로 모셔 드리웁고, 그 다음에는 양씨 할마님, 김씨 선생 정의 고을 김씨 선생님을 먼저 모셔야 한다 운동 하여 신 길을 바로잡아 있습니다.

안명두(內明刀)¹⁰⁾는 옛날 증조 할아버지 영험 좋던 일월 삼명두 작은 할아버님이 움덕을 쥐고 성친 계유생이 넘어 다니던 김세완이 무술생 스물 아홉 살 가져 다니다 이북까지 가서 사니, 임시 잠깐 신의 아이 얻어 모시고 다닙니다. 옛 삼명두도 안명두로 놓았습니다.

이 집안의 마흔 한 살 남¹¹⁾ 서른 두 살¹²⁾ 몸 받던(대를 잇던) 일월조상 삼명두는 이 마을에 고씨 어머님¹³⁾ 생신 때, 물려주질 못하여, 이 조상 놓고 본메 놓아(본을 떠서) 본을 놓아, 쇠동냥¹⁴⁾ 하여다 스물 아홉 나던

- 6) 사람이 죽으면 '시왕'에 가지만 심방이 죽으면 '삼시왕'에 간다고 한다. '삼시왕'은 하늘 옥황 삼천천제석궁을 말한다.
- 7) 일월(日月)은 '조상신'을 뜻하므로, 조상신 삼명두.
- 9) 신길을 바로잡다. 굿을 하여 질서를 회복하다.
- 9) 역례(役禮)는 신의 덕에 먹고 입고 살아온 보답으로 신에게 바치는 의례이고, 초 역례는 처음 하는 신굿을 말한다. 제주의 심방은 세 번 신굿을 하여야 큰 심방으로 인정을 받는다. 초 역례를 하면 '하신충', 이 역례를 하면 '중신충', 삼 역례를 하면 '상신충'이 된다. 상신충은 심방의 가장 높은 계급.
- 10) 안 주인 이정자가 가지고 있는 명두.
- 11) 김윤수 씨. 1986년 굿을 하던 당시 나이.
- 12) 이정자 씨.
- 13) 김윤수 씨의 수양 어머니.
- 14) 심방이 무구를 제작하려면, 단골들에게 늦그릇 같은 죄를 얻어다가 야장신(冶匠神)에게 '갈메하르방 고사'를 지내고, 조상의 명두를 본으로 떠서 명두를 만든다.

해, 제주시 황대장¹⁵⁾에게 가서 좋은 본메를 내어(본을 떠서) 매어 살려(뒤를 이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씨 어머니는 예순 아홉 나던 해에 별세하여, 삼시왕에 종명(終命)하니 물려받아 한 당주 한 본메 한 조상이 됩니다. 옛날 옛적 내팍굴(川外洞) 고씨 선생님¹⁶⁾이 본메 내어 주던 일월 삼명두이웁고 조천관 안참봉 안씨 선생님 본메 내어 주던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형제간이 되니 성은 김씨로 기유생 몸을 받든 조상 님과 한 역가(役價)¹⁷⁾로 왔습니다. 성은 이씨 임신생 몸을 받던 성친 이씨 조상님네 딸 위해 내 딸 짐이 되려고 성은 양씨 갑술생 몸을 받던 일월조상님. 성은 한씨로 병자생 몸을 받던 성은 김씨로 을미생 몸을 받던 조상님과 그 뒤로는 성은 김씨 을축생 몸을 받던 일월조상이로구나. …… 명두의 신길을 바로잡아 드렸으니 성은 김씨로 신유생 몸 받던 조상님은 이제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안명두 고씨 선생 이어 당주 전에 내어 먹던 일월 조상님이랑 안으로 들어서며 들어서며 신길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조상 님에 어차피 못 모실 조상 님이랑 물려서도 좋습니다. 그러니 차마 흥(凶)볼수야 있습니까. 그러니 일월삼명두 안명두 밧명두 둘러 받아, 동굴동굴 <쇠놀림굿¹⁸⁾>이여. (樂舞. 매우 빠른 박자)

15) 황씨 성을 가진 대장장이.

16) 제주시 동문시장 부근 산지천 밖에 있는 마을 큰 심방 고씨 선생의 명두의 본.

17) 역례(役禮)와 같은 뜻.

18) 쇠놀림굿. 당주맞이 마지막에 하는 굿. 이 굿은 1986년 김윤수·이정자 심방 집에서 한 신긋의 한 제차다. 쇠놀림굿은 굿을 집행하는 수심방과 소무들의 명두와 신긋을 하는 제주 김윤수(밧명두)·이정자(안명두)의 명두들을 한꺼번에 큰 그릇에 놓고 흔들다 당주맞이 상을 모신 방안에 던진다. 그리하여 명두의 순서를 보아 신 길이가 바로 잡혔는가를 점치는 곳이다. 결국 명두몰림을 한 명두가 수심방의 명두 뒤에 놓여 수심방의 명두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 점괘가 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신길을 바로 잡았다'고 한다.

제주도의 심방이 세습무라는 것은 명두물림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명두의 내력은 신의 질서, 즉 신길을 바로잡는 신굿을 통하여 밝혀진다. 신굿은 초공본풀이를 굿본으로 하는 당주맛이가 중심을 이룬다. 당주맛이는 '신길을 바로 잡고, 숨겨진 명두를 찾아, 약밥·약술을 먹고 새로 탄생한 심방에게 물려주는 굿이며, 이 굿의 마지막 점이라 할 수 있는 <쇠놀림굿>은 '신길이 바로잡혔는가' 하는 종합적인 명두점(占)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명두를 지닌 새 심방은 신굿을 하여 역례를 바침으로써 차례차례 재 차례굿을 바르게 하여 신길을 바로잡아주는 수심방과 소무들의 명두의 질서 속에 편입됨으로써 심방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역례를 바쳐 심방이 되는 과정은 초공본풀이를 굿본으로 한 당주맛이에서 찾을 수 있다.

2. 초공 본풀이

1) 초공본풀이와 신굿

제주도의 무조 신화(巫祖神話)를 '초공본풀이'라 한다. 초공본풀이는 중의 아들 무조신(巫祖神) 삼형제가 태어나, 삼천 선비를 제치고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과거에 낙방한 삼천 선비가 어머니를 죽여 삼시왕(三千天帝釋宮)에 가두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심방이 되어 굿을 하였다는 이야기이며, 어머니를 구하고 삼시왕에 올라가는 도중에 '어주애삼늑거리'에서 양반의 딸 유정승 따님에게 육간제비를 주어 심방이 되게 하고, 삼시왕에 물명주(水明紬) 전대로 걸려 올려 약밥약술(藥飯藥酒)를 먹이고 어인타인(御印打印)을 놓아 무당서 3천 권을 내어주며 세상에 내려보내 최초의 굿을 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초공본풀이 전반부는 심방의 조상신 무조의 내력과 굿법, 후반부는 심방의 선생 유씨 부인이 팔자를 왜 그르쳐 심방이 되

있으며 어떻게 굿 법을 전수했는가 하는 굿 법 전수의 내력담으로 이루어졌다.

I. 무조의 내력담과 굿법

II. 심방의 내력담과 굿법의 전수

지금까지 초공본풀이 연구는 신화의 전반부 무조의 내력담과 굿법에 대한 관심에서 이루어졌고, 후반부는 소홀히 다루어 졌다. 그 이유는 채록된 초공본풀이 대부분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야기, 즉 최초의 심방 '유정승 따님'이 '굿법을 어떻게 전수하였는가' 하는 내용이 애매하게 표현되거나 잘 설명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의 신굿은 심방이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심방 집에서 하는 내림굿이며, 모든 굿의 절차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굿법에 어긋남 없이 행하는 '차례차례 재 차례 굿'이다. 신굿은 제주도의 큰굿에다 심방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당주연맞이'의 복합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당주연맞이'는 초공본풀이 후반부 즉, 무조신으로부터 심방의 자격을 얻고 굿을 하게 된 심방의 내력담과 굿법 전수의 내력담을 굿으로 보여주는 맞이굿이다. 제주도에서는 '당주연맞이'를 제대로 하는 심방이 큰 심방이며, 이러한 몇 안 되는 큰 심방들만이 초공본풀이를 제대로 배운 심방이다. 제주도의 많은 심방들 중 '당주맞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심방은 2, 3인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의 무조 신화의 후반부와 신굿 '당주연맞이'의 원리, 즉 신화와 의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굿이 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2) 초공본풀이와 굿

삼천 선비의 흥계로 어머니를 잃은 신화의 전반부는 무조 삼형제가 이승에서 겪는 시련이며, '속(俗)의 세계'를 설명한다. 글도 장원, 활

도 장원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삼천천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하여 과거를 반납하고 심방이 되는 과정이 신화의 후반부를 이룬다. 이 후반부에 '신 뿌리'로서 굿의 원리가 있다.

(1) 신자리(拜席자리)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니, 배석(拜席) 자리를 내어 주고 어머니를 찾으려면 황금산 도단땅 아버지를 찾아가라 일러준다. 그때 낸 법으로 심방이 굿하러 가면, 신(神)자리라 해서 돛자리를 깔아 주는 법이다. 심방은 신자리 위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며, 굿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제주도의 큰굿에서 굿 한 마당을 굿 한 석(席)이라 한다.

(2) 천문

황금산 도단땅에 아버지를 찾아가다. 어머니를 찾으려면 팔자를 그려쳐 심방이 되라 한다. “나를 찾아오며 보았던 것이 무엇이나?” “하늘(天) 땅(地) 문(門)입니다.”하고 삼형제가 대답하자, 아버지 주점 선생은 동그란 돛쇠에 [天地門]이라 새겨진 천문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천문은 굿을 할 때 신의 뜻을 묻는 무점구가 되었다.

(3) 무복과 굿법

큰아들아 서울 과거 갈 때에 무엇이 좋더냐? 도입상(到任床)이 좋습다. 설운 아기가 초감젓상 받아보라. 그것보다도 더욱 좋다.¹⁹⁾ 셋 아들이 과거 갈 제 무엇이 좋더냐? 어수애(御賜花) 비수애(妃賜花) 상도레기²⁰⁾ 놀매²¹⁾ 옷이 좋습다.²²⁾ 초신맛이 하여 보라. 그것보다 더욱 좋다.²³⁾ 죽은 아들이 과거 갈 적 무엇이 좋더냐. 비비동당 과거 소리²⁴⁾ 구

- 19) 과거 급제하여 도입상을 받는 것보다 심방이 되어 초감젓상 받는 것이 더 좋다.
- 20) '도레기'는 '도로기', 털가죽의 털이 안으로 가게 만든 겨울 신의 하나.
- 21) 날개 옷: 신선이 입는다고 하는 날개가 붙은 상상의 옷.
'놀매' = 후리매: 두루마기.
- 22) 안사인 본에는 셋아들에게 무엇이 좋더냐고 물으면, 별연독고(別輦獨轎) 쌍가마(雙駕馬)가 좋고, 육방하인(六房下人)이 좋다고 한다.

경홀만 험디다.²⁵⁾ 시왕맞이 해여근 제왕(諸十王)을 받아²⁶⁾ 굿해보라.
그것보다 더욱 좋다.²⁷⁾

〈초감제〉는 관복을 차려 입고, 과거 급제하여 도입할 때 받던 상을 좋아한 큰 형님이 맡는다. 최초의 굿에서 〈초감제〉는 이승에 관리가 되기를 포기하고 심방이 된 큰 형님이 다시 관복을 입고, 저승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림 하는 신들을 청하는 청신의례(請神儀禮)라는 것이다.

〈초신맞이〉는 관복을 차려 입고, 과거에 급제하여, 가마를 타고 하인을 거느려 행차하는 과정을 인상 깊게 보았던 들째 형님이 맡게 되었다. 최초의 굿에서 〈초신맞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행렬을 5리 밖까지 가서 맞이하고 모셔 오는 영신의례(迎神儀禮)이다.

〈시왕맞이〉는 남수화주(藍水禾紬) 적쾌자(赤快子)에 갓을 쓴 관복 차림을 좋아한 작은 아들이 맡게 되었다. 이 관복 차림은 〈차사본풀이〉에 등장하는 인간 차사 강림이 저승갈 때의 차림과 같다. 〈시왕맞이〉는 저승의 관복을 입고 열두 시왕(十王)을 맞이하여 환자의 명과 복을 이어주고, 죽은 영혼을 천도(薦度)하는 의례이다.

제주도의 큰굿은 〈초감제〉, 〈초신맞이〉, 〈시왕맞이〉를 기본 틀로 하고, 집안의 사정에 따라 다른 굿이 포함되어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각 굿의 제차마다 각기 다른 심방들이 자기가 잘

- 23) 심방이 되고 굿을 하여 〈초신맞이〉를 맡아보는 것이 과거를 하여 좋은 신을 신고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좋다.
- 24) 비비등당 풍악을 울리며 급제를 환영하여 맞이하던 소리.
- 25) 안사인 본에는 남수화주(藍水禾紬) 적쾌자(赤快子)와 밀화패영(蜜花貝纓)의 관복이 좋다고 한다.
- 26) 제왕(諸王)을 받아: 열두 시왕(十王)을 맞이하여.
- 27) 심방이 되어 〈시왕맞이〉를 맡아보는 것이 과거하여 비비등당 풍악을 울리는 것보다 더 좋다.

하는 곳 한 자리(一席)씩 맡아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²⁸⁾

(4) 무악기의 제작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는 삼천천제 석궁 깊은 궁에 갇혀 있으니 북을 만들어 북을 울리라는 것이다.

어주애삼죽거리²⁹⁾에 너사메삼형제³⁰⁾가 비새(悲鳥)같이 울고 있었다. “너희들은 어째서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아방 어멍 일가친척 없어 울고 있다.” “우리과 같은 몸이로구나. 이리 와서 우리 육 형제나 마련 하자.” 어멍의 물명지 단속곳 왼쪽 구멍에서 오른쪽 구멍으로 나와 위 아래 육형제 마련하였다. 이들과 헤어져 삼형제는 다시 떠났다. 굴미굴 산³¹⁾ 노조방장산³²⁾ 올라가, 물사오리 실사오리³³⁾ 잘라다가 첫째 것은 끊어다 올랑국을 설연호고³⁴⁾ 둘째 것은 끊어다 삼동막을 설연하였다.³⁵⁾ 동해 바다 쉼칠이 아들³⁶⁾ 불러다가 크고 작은 도간³⁷⁾을 만들어 남천문³⁸⁾에 각(刻)을 새기고 남상잔³⁹⁾을 지었다.

-
- 28) 문무병, 「제주도 국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석사학위 논문, pp.33-34.
- 29) 무조 삼형제가 너사메너도령을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는 서광베포망에 있는 삼거리.
- 30) 너사메 너도령 삼형제: 무조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고 樂器의 神이 되었다.
- 31) 산 이름, 아주 깊고 깊은 산.
- 32) 산 이름.
- 33) ‘물사오리’ ‘실사오리’는 물사오기 실사오기, ‘사오기’는 ‘사옥낭’ 벗나무를 말한다. ‘실사오리’는 가는 잎 벗나무, ‘물사오리’는 개벗나무.
- 34) 올랑국 즉, 북을 만들고.
- 35) 삼동막 즉, 살장고를 만들었다.
- 36) 대장장이의 아들, 명도(明刀)를 만들었다는 야장신(冶匠神).
- 37) 도가니,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단단한 흙이나 흑연으로 오목하게 만들. 갑과(坩堝).
- 38) 나무로 본을 만든 천문(天門).
- 39) 나무로 본을 만든 상잔. 낫쇠잔 모양으로 각(刻)한 나무 본(本).

(5)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림

삼형제는 두 이레 열 나흘 동안 북소리를 울려 굿을 하여 어머니를 살려내었다. <큰굿>은 두 이레 열 나흘 삼천천제석궁에 북을 울리는 것이며, 삼천천제석궁에 갇힌 어머니를 구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6) 어머니는 '이승 삼하늘'을 차지하고, 너도령은 악기를 지킴

서광배포땅 어주애삼녹거리에 큰 집을 지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는 '이승 삼하늘'을 차지하게 하였다. 북, 장고 등은 너사메너도령에게 지키게 하였다. 너도령 삼형제는 악기의 신이 되었다.

(7) 신칼을 만들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저승 삼시왕이 됨

이와 같이 어머니를 구하고 양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무조 삼형제는 천문·상잔·신칼과 같은 무점구와 북, 장고와 같은 무악기를 만들고 굿하는 법을 마련하였고, 하늘에 올라가 저승 삼시왕(三千天帝釋宮)을 차지한 신이 되었다.

3) 최초의 심방 유씨 부인

<초공본풀이>의 마지막 이야기는 삼형제가 양반의 원수를 갚고 삼시왕에 올라가는 도중, 남천문 밖 '유정승 따님 아기'를 만나 '파란공에 육간제비'를 준다. 유정승 따님 아기는 이로부터 눈이 멀어 죽었다 살았다 하며 예순 일곱 살이 되니, 눈이 뜨이고 신안(神眼)을 얻는다. 아랫마을 자부장자 집 아이가 죽어 가는 것을 살리는 굿을 하여야 하는데 굿법을 몰랐다. 유씨 부인은 <시왕맞이> 도중 혼절하여 헤매다가 북소리를 따라가니, 거기는 서광배포땅이요, 무조 삼형제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궁전이 있었다. 마침 삼형제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내려와 있었다. 유씨 부인은 삼시왕에게 앞드려 빌었다. 전생 팔자를 그려쳐 심방이 되려는데 굿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삼시왕은 유정승 따님 아기가 굿을 하며 얼마나 역가를 올렸는지 그녀의 정성을 저울로 달아본다. 백 근이 못 찼다. 그로부터 유씨 부인은 어머니의 궁에서 도를 닦았다. 그제야 삼시왕에서 약밥약술을 먹여 심

방이 되는 의식을 행하고, 어인타인을 찍어 심방임을 인정해 주면서 무당서 삼천권과 삼천기덕 일만제기 궁전궁납을 내어 주었다. 유씨 부인은 돌아와 굿을 하여 자부장자의 딸을 살려냈다. 유씨 부인이 받은 무당서 삼천권은 굿법을 기록한 책이며, 지금도 그 굿법에 따라 굿을 한다. 유씨 부인은 최초의 심방 선생이다.⁴⁰⁾

40) 유정승 따님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심방마다 다르게 구송한다. 그 중 문제되는 것은 육관대사가 지나가다 육간제비를 주었느냐, 무조 삼형제가 주었느냐 하는 것. 유정승 따님 아기가 삼시왕에 올라가 굿법을 배워 왔는가, 어머니를 모신 서강배포망에서 도를 닦았는가, 삼시왕에 올라갔는가 등 누구 하나 확실하게 대답하는 심방이 없다. 그리고 7세에 무병을 앓아 67세에 신안을 얻어 굿을 하였다 하는데, 10년이 지나 77세에 약밥약술을 타 먹고 심방이 되어 삼시왕에서 무당서를 받아와 굿을 하여 자부장자 집의 딸을 살려내었다면, 10년 동안 굿을 했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심방 사회에서도 확실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다. 앞의 이야기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업에 종사하는 함덕리 출신 김만보 심방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또 유정승은 무조 삼형제의 어머니를 죽인 삼천 선비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삼형제가 삼시왕에 올라가는 도중 길에서 놀고 있는 일곱 살이 된 유정승 따님 아기를 보았을 때, 이 아이를 심방으로 만들기 위해 육간 제비를 채워준 것이며, 이는 양반의 집에 사당공사(祠堂供辭), 양반의 집에 크게 다들 일을 만들어 준 것이며, 양반을 심방으로 만듦으로써 양반에게 원수를 갚았던 것이다. 육간 제비는 점치는 도구로 이러한 무구를 주우면 심방이 된다. 만일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지 않으면 계속 병을 앓게 되는데 이를 무병(巫病)이라 한다.

67세에 신안을 얻은 유정승 따님 아기가 도를 닦아 무업을 전수한 10년 3000일은 무당서 3천권에 나온 굿법을 전수한 기간이다. 저승의 신계에서는 10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자부장자집 시왕맛이 굿을 하는 10일 동안에 굿법을 전수하여 굿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계에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저승에서 10일을 보낸 것이다. 즉 인간의 나이로 67세에 신안을 얻은 유씨 부인이 77세의 나이에 최초의 심방이 되었다는 것은 저승 10일 동안 굿을 익혀 돌아와 자부장자집의 최초의 굿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씨 부인 이야기는 제주도 무속사회에서의 심방의 세습과 굿법의 시작을 말하여 준다. 그리고 양반의 딸을 심방으로 만들어 팔자를 그르치게 함으로써 양반에 대한 복수를 하였다는 무조 삼형제 '삼시왕'의 신의(神意)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심방이 되는 의식으로 심방이 될 사람에게 <약밥약술>을 먹이고, 수심방이 삼시왕을 대신하여 심방의 자격을 인정하는 <어인타인>을 짚어 주는 의식(儀式)은 초공본풀이의 후반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김만보 심방의 초공본풀이⁴¹⁾]

연당 아래서 너사무너도령 삼형제 언제면 삼시왕 젓부기 삼형제가 내려 올 것인가 걱정하던 참이고. 삼시왕은 하늘에 오르며 생각하니 원통했어. 우리가 중의 아들이라고 해서 과거보러 간 때에 양반 삼천 선비 중에 유정승이 밀서를 했어.⁴²⁾ 그러니 이 원수를 우리도 갚아야겠다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유정승 외딸 아기가 하루는 화숯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삼시왕이 조화를 부려 육간제비⁴³⁾를 줌게 했어. 그러니 유정승의 딸은 육간제비를 주워서 가지고 놀다가 집이 가져가면 어멍 아방한테

41) 1995년 5. 27~6. 9. 복제주군 함덕리에서 치러진 정태진·이승순 부부의 신긋에서 특별히 오사카에서 모셔온 김만보 옹의 들려준 본풀이다. 굿을 하며 직접 노래한 것은 아니고, 초공본풀이에 담긴 신긋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래와 설명을 겸하여 들려준 것이다.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한 방언의 어미를 표준어로 고쳤다.

42) 초공본풀이에 보면, 젓부기 삼형제가 양반 삼천 선비를 제치고 과거에 급제 하였을 때, 선비중 하나가 삼형제가 양반이 아니라 중의 자식이라고 고해 바친 자가 있었다. 술과 고기가 든 상을 차려놓으면 알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고기 상을 차리자 삼형제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때문에 중의 자식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문과 급제를 거두었다. 이 중의 자식이라고 고해 바친 자가 '유정승'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젓부기 삼형제가 삼시왕이 되어 하늘에 올라갈 때, 유정승의 딸이 육간제비를 줌게 하고 심방이 되게 했다고 한다.

43) 점을 치는 도구. 삼시왕이 심방이 되라는 징표로써 준 무점구.

육 들을까 봐 어디 숨기기도 하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노뎃돌 밑에 숨겼어. 그랬더니 일곱 살 나는 해엔, 여섯 살에 육간제비를 주웠는데, 일곱 살에 갑자기 눈이 멀어. 열 일곱 살 되니 눈을 떴다가, 스물 일곱 살 되니 또 눈이 멀어. 서른 일곱되니 밝았다, 마흔 일곱 되니 어두웠다. 쉰 일곱 되니 떴다, 예순 일곱 되니 만능천지가 돼. 장님이 되니 시집도 못 갈 거요, 아무 데도 못쓰게 되니, 아버지 유정승은 딸에게 네 팔자 네 사 주니, 네 맘대로 아무 데라도 다니며 네 살 도리를 하라고 했지. 그러니 육간제비를 지니고 유정승 따님 아기가 동서남북을 낮에는 연기를 따라, 밤에는 불 켜 곳을 쫓아 헤매어 다녔지. 아마 점을 쳤을 테지. 그래서 아랫녘 마을에 당도하니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라. 이젠 누구네 집입니까 하니, 아랫녘의 자복장자네 집이라고도 하고, 말복장자네 집이라고도 하는데, 집안으로 들어가 “어째서 울고들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 집 외동딸이 엇그제 죽어서 일곱 매장 묶어 놓고 제를 지내며 운다고 하니, 유정승 따님이 들어가서, 넘어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신녀(神女)입니다마는, 한 번 문 앞에 상 한 상 차려놓고 쌀 한 사발 담아놓고 물 떠놓고 향불 피워 놓으십소서. 주인이 그렇게 하니, 이 아이 살려달라고 비님을 하고 제비쌀을 던져 점을 치더니 “이 아인 삼시왕의 조화(造化)입니다. 이 아기는 삼시왕에 걸렸으니⁴⁴⁾ 굶을 해야 합니다.” 소지(燒紙)해서 그 연유를 닦으면서 소지를 올리는 거라. 올려두고 “내가 이 재 넘고 저 재 넘어가서 죽었던 아기가 살아나거든 나를 찾아 옵서.”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니 “이 재 넘고 저 재 넘어 유정승 따님 아기를 찾아오십시오.” 하고는 유정승 따님 아기는 떠나 버렸지.

떠나 버리자 얼마 없어서 말복장재 작은 딸 아기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그러니 당장 굶을 해야 할 거라. 이젠 유정승 따님 아기를 찾아가 아기씨는 살아났으니 와서 굶을 해달라고 하니, 굶을 하려해도 자 명두(明刀)도 없지, 북 장구도 없지, 소미(小巫)도 없지. 그런데 마침 달이 진 밤이 되는 거라. 처음 전승팔자 그르쳐 점치기 시작해도 누구 인도도 시켜주지 않고 동서남북 아찔하듯이 그거 벌써 삼시왕의 조화도 조화이

44) 삼시왕에 걸리다. 신이 저승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굶을 하여 저승길을 잘 닦으면 나올 수 있다.

고, 아마 황금산주접선생이⁴⁵⁾ 모두 지휘했을 테지. 그래서 어주에삼녹거리⁴⁶⁾ 서강베포 화솥물 신전 집 있는 앞에 가서 헤매다가 지치고 다쳐서 그 문밖에 수양천배(修養千拜)를 하는데, 그냥 지쳐서 누웠어. 삼시왕이 마침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가 된 날이었지. 내려오다 보니 왜 여자가 올래⁴⁷⁾에 정신없이 엎드려 있거든. 그러니 어서 너사무너도령에게 저 올래에 어떤 신녀가 엎드려 있느냐? 거 삼시왕은 다 알고 있거든. 벌써 그 조화를 그리 준 어른이니. 데려 오라 하니, 강명주(明紉) 전대(戰帶)로 끌어들여서 만단 사실을 이르라 하니, 제가 엽전(육간제비)을 주웠기 때문에 팔자를 그르쳐 다니다가 말복장재네 집에서 굶을 해 달라기에 가 보니 굶을 할 무당서도 없고 무구도 없어서 이리 헤매고 다닙니다고. 그러니 삼시왕은 은저울을 내어놓아 저울에 달아본다고 대추나무 은저울로 달아보니 백근이 못 차거든. 넌 아직 멀었다. 무당서(巫堂書)를 내줄 테니 가서 공부 더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 무당서를 가져와 공부를 해서 말복장재네 집에 굶을 가게 됐어. 굶을 가게 될 때에는 또 그 어주에삼녹거리 서강베포 신전집⁴⁸⁾ 지은 올래에 가 있으니 마침 삼시왕이 내려와서 너사무너도령에게 걸려들이라고⁴⁹⁾ 해서 얼굴 들어라 얼굴 보자. 얼굴도 좋다. 너는 인간에 다니며 부정이 많았으니 부정을 없애야겠다고 해서 향불 피워 둘러 휘두르고, 그러면 어디 대추나무 은저울로

45) 무조신의 아버지.

46) 저승 삼시왕과 이승 사이에 있는 이승 삼 하늘, 저승과 이승 중간 지점 삼시왕 셋부기 삼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신전집을 지어 악기의 신 너사무너도령 신에게 악기를 지키게 했다는 서강베포 땅에 있는 삼거리.

47) 올래는 대문에서 길까지 나가는 진입로의 좁은 돌담길.

48) 서강베포 땅은 저승과 이승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곳. 삼시왕 무조 삼형제가 신전집을 지어 어머니를 모신 곳.

어주에삼녹 거리는 이곳에 있는 세거리. 이곳에서 무조 삼형제는 악기의 신 너사무너도령을 만난다.

49) 잡아들이라. 잡아들이는 경우, 굶을 할 때는 명주 전대를 목에 걸어 제장으로 끌어들인다. 그러기 때문에 '걸려들인다'고 한다. 이는 옛날 삼시왕이 잡아들이던 것과 같다.

저울여보아야겠다고 저울여보니, 아 이만하면 아끈(작은) 장대 한(큰) 장대 찻다고⁵⁰⁾ 신전에(굿을) 거행할 수가 있다고. 이제는 장대 내라 질대 내라 하여, 광목으로 해서 어깨에 대보고 키를 재고, 그리하여 장대 질대도 이만하면 체격도 좋고 신전에 가(可)할만 하다고. 이제는 그 모든 걸, 삼천기덕(三千旗纛) 일만제기(一萬祭器) 궁전궁납(宮中宮樂)⁵¹⁾을 타 갈려고 하면, 모든 역가(役價)⁵²⁾를 바쳐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다니며 번 역가, 가림이 설췌⁵³⁾를 쳐 번 역가랑. 그렇게 치면 역가는 많지. 본풀이 하여 번 역가랑, 이 모든 역가를 바치면 신의 제자로서 신의 하신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이젠 예인(御印) 타인(打印)⁵⁴⁾ 감봉 수리 막음⁵⁵⁾ 주자. 그리하여 약밥 약술(藥飯藥酒)⁵⁶⁾도 내어주라고 하는 것과 예인 타인 감봉 수리 막음 준다든 것은 당당이 이젠 허급(許諾)받은 심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도장을 물려주는 거나 다름 없고, 또 심방을 하는 동안에 이 예인 타인을 맞고 약밥약술을 먹으면은 명(命)도 길게 해주고 신길도 바로잡고 연길도 바로잡고 응 이제 말명⁵⁷⁾ 젓드리⁵⁸⁾도 바로잡아 주고 당당한 심방이 되겠금 하기 위한 금닌(金印) 옥닌(玉印) 감봉 수리 그것을 맞혀. 그리고는 이젠 역가도 바쳤으니, 이제 전승팔자를 오늘부터 그르치게 되었으니⁵⁹⁾, 모든 것을 삼시왕에서 내어

- 50) 정성이 백근이 찻다. 그만하면 정성이 충분하다.
- 51) 굿 할 때 필요한 무구. 모든 기, 그릇, 악기들.
- 52) 굿을 하여 신의 덕에 벌어먹은 역가. 무업을 하여 벌어먹었으므로 신에게 보답해야 할 댓가.
- 53) 제주도의 무악기. 췌과리와는 달리 맑은 쇳소리가 난다.
- 54) 삼시왕의 옥새(御印)를 등에 찍어(打印) 심방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일. 수심방은 새 심방의 등에 작은 놋그릇 뚜껑을 등에 찍는다.
- 55) 아마 등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하여 심방임을 인정하는 절차인 듯.
- 56) 심방의 자격을 얻은 유정승 따님아기에게 신(삼시왕)이 내린 밥과 술. '약'은 신의 영험을 얻게 하는 약이다.
- 57) 굿에서 하는 사설.
- 58) 굿을 하는 순서. 제차(祭次).
- 59) 심방이 되었으니, 심방이 되는 일을 '팔자 그르쳤다고' 한다.

주라고 했다. 파랑 안채⁶⁰⁾, 연물⁶¹⁾ 싸서 다니는 거 먼저 내어주고, 그 다음은 올랑국(복)도 내어주라. 이리 말하는 순서대로 소무는 복을 내어 주고, 대제김(복)도 내어주라, 대양(징)도 내어주라, 설체도 내어주라. 소리 좋던 상동맥이(장고)도 내어주라. 그 다음은 일월삼명두 개천문 개상잔(산판) 내어주라 시왕대번지(신칼) 내어주라. 호름중치 득보잘리(자루) 모두 내어주라 하면, 차근차근 내어주면, 그 다음에는 흥포관대도 내어주라. 남수와단서남과지⁶²⁾도 내어주라. 녹의홍상 연반물 치마 진녹색 저고리도 내어주라. 백농(白綾)버선도 내어주라 서승미 미투리도 내어주라 만주에미 홍겉랫베도 내어주라. 거느려가면 조근조근 초공 신줄⁶³⁾, 이공 연줄⁶⁴⁾, 내어주라 삼공 전상줄⁶⁵⁾도 내어주라 시왕 청비계 흑비계 팔만금사질문대도 내어주라 당베(堂布)여 절베(寺布)여 매인 공서 아산 신베(神布) 삼시왕에 팔만금사전베도 내어주라 이젠 모두 베 내어주는 말을 한 다음, 이젠 이명거리도 내어주라, 굴송낙도 내어주라. 질갓(冠)도 내어주라, 이젠 다 받을 거 아니겠나. 영기(令旗) 몽끼(命旗)도 내어주라. 신령 한기도 내어주라. 모두 받으면, 이제는 심방 복장을 차릴 거 아닌가. 심방 행장을 차려 옷 입고 베⁶⁶⁾ 매고 나서면, 한 번 우리 앞에서 몸가짐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예개마을 불려서 춤을 추게

60) 파란 안채포. 안채포는 심방이 무구를 싸서 다니는 포(布).

61) 무악기(巫樂器).

62) 남수화주(藍水禾紬)와 적쾌자(赤快子)의 와전.

63) 초공 '무조신' 과 맺은 인연의 줄.

64) 이공 주화신(呪花神)과 맺은 인연의 줄.

65) 삼공 전상신과 맺은 업보의 줄. '전상'은 타고난 버릇, 전생의 업보, 직업 등을 말한다. 인간의 직업과 숙명을 관장하는 인연의 줄.

66) 심방이 되면 신줄, 연줄이라는 인연의 줄을 몸에 맨다. 이 줄은 마을의 신당과 인연을 맺은 줄 '당베(堂布)', 부처와 인연을 맺은 줄 '절베(寺布)', 심방이 되어 무조신과 인연을 맺은 줄 '아산 신베(神布)'이다. 심방이 신과 인연을 맺고 심방이 되었다고 할 때, "당베, 절베 매었수다. 아산 신베 매었수다."고 이른다.

67) 제주도의 굿 <풍류놀이>에서 하는 노래. <풍류놀이>는 맞이굿의 초감제 때,

하여보자고 하면, 이제는 '니난니 니난니'⁶⁷⁾ 하며 춤을 추게 해. 옛날은 새 심방이 나려면 우선 '니난니'로 춤을 추게 하지. 그래서 이만 하면 예개마을곳은 잘 논다고. 울랑국 범천왕⁶⁸⁾으로 조직조직 신전국 대축(大祝)대로 노념해보자⁶⁹⁾ 하면 감상기와 신칼 잡고 와썹하게 놀아. 그래서 폭 쓰러지면, 그 땐 심방이 나서서 연유를 닦아가지고 당당한 삼시왕에 예를 바친 심방이 오늘 에인타인 맞아 약밥약술 먹었으니 당당한 신이성방⁷⁰⁾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해 가지고 <체늘림굿>을 한번 해서 거기에 지워 봐⁷¹⁾. 지워서⁷²⁾ 이제 당당히 심방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심방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이젠 허급받은⁷³⁾ 심방이 되었습니다 하면 아이구 이젠 신전에 태운 몸⁷⁴⁾이라서 이제 그 곳을 가야 한다고. 응 유정승네 집, 아니 저 아랫녘 자복장자네 집의 곳을 가야 한다고. 소지(燒紙) 꺾어놓고 했으니, 이젠 소무(小巫)들 비는⁷⁵⁾ 말 하고, 기매 선생이여, 놀매 선생이여, 당반⁷⁶⁾ 선생이여, 전부 빌었다 하지만 그건 말이고(생략).

67) 신을 5리 밖까지 가서 맞이하여 모셔오는 <오리정신청례>의 막판에 모든 신들과 삼시왕의 이승 행차에 안내를 맡은 감상관(= 본향당신)과 각 고을의 당신이 모인 자리에서 신들을 즐겁게 하는 놀이다. 이때 심방은 '니난니 난니야'를 부르며 춤을 추면, 구경꾼들도 함께 춘다. 그러므로 <풍류놀이>는 심방이 삼시왕 앞에서 심방이 되었음을 보이고, 신을 즐겁게 하는 춤이다.

68) 대북(大鼓).

69) 놀아보자. 놀이해 보자.

70) 신(神)의 형방(刑房). 심방은 신의 명을 받고 저승법으로 다스리는 형방이다. 그래서 '신방' 또는 '심방'이라 한다.

71) 짓다(作). 점(占)을 치다(算).

72) 점괘를 보고.

73) 신에게 허락을 받은.

74) '신전에 타고난 몸', 심방이 될 운명.

75) 품삯을 주고 사람을 쓰는.

76) 기매, 놀매, 당반은 굿에 필요한 기매(旗) 전지(紙)를 관리하는 신. 여기서는 굿에 필요한 기매 전지를 만들며 잔심부름하는 소무.

4) 신화와 의례

신화와 의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례주의(儀禮主義) 학자들의 주장에는 신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신화의 내용을 상징적인 행위로 표출한 연기가 의례라는 '신화 선행설(神話先行說)'과 원시적 종교성이 회미해지면서 의례의 본래적 의미가 망각되었다가 다시 그 의례에 새로운 해석·설명이 신화를 발생시켰다는 '의례 선행설(儀禮先行說)'이 있다.⁷⁷⁾

제주도의 굿은 '본풀이와 맞이' 또는 '본풀이와 놀이'로 이루어져 있다. 본풀이를 노래해 가다가 그 내용을 의례 행위로 실현하거나 의례 행위의 신화적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맞이굿이며, 맞이굿에서 본풀이를 노래하거나 그 내용의 의례적인 행위 연출은 의례 행위의 신화적 근거를 댐으로써 의례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신화적 사실을 현실에 재연하여 원고적 질서대로 회귀·갱신시키는 의미가 있다.⁷⁸⁾ 그리고 본풀이의 내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놀이굿에서 신화는 연극의 대본과 같은 것이요, 그것을 대사와 행동으로 연출한 것이 놀이굿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굿은 신화가 먼저 있어 그 내용을 극적 의례로 연출한 것이라는 신화 선행설의 입장에서라야 설명이 가능해 진다.⁷⁹⁾ 따라서 이 글은 선행 연구를 근거로 초공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신굿의 원리를 밝히면서 동시에 신굿의 원리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례, 〈약밥약술〉, 〈어인타인〉, 〈곱은 멍두〉, 〈당주 질치기〉를 통하여 초공본풀이 후반부의 애매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보려는 것이다.

77) 大林太良, 1970, 『神話學 入門』, 中央公論社, 東京, pp.154-163.

78) 현용준, 1986, 「한국 신화와 제의」, 『월산』, 임동권 박사 송수기념논문집, p.341.

79) 앞의 글, p.344.

- I. 굿 : 본풀이(굿본) → 맞이 또는 놀이(굿법)
- II. 연극: 희곡 → 연극

3. 초공 본풀이와 신굿

1) 약밥약술

약밥약술(藥飯藥酒)은 제주도의 신굿 중 중요한 제차(祭次)인 <당주맞이>에서 '새로운 심방(巫)'을 탄생시키는 대목이다. 약밥약술(藥飯藥酒)은 심방이 될 사람이 삼시왕[巫祖神]에게 역가(役價)를 올리고, 신으로부터 그 정성을 인정받으면, 삼시왕(巫祖神)에서 내려 주는 약밥약술을 타 먹고, 어인(御印打印)을 맞아, 비로소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입무의례(入巫儀禮)이다.

<초공본풀이>를 보면, 유정승의 딸은 정승의 딸로 태어나 일곱 살에 육간제비를 줍고, 눈이 머는 무병(巫病)을 앓다가 예순 일곱에 신안(神眼), 즉 예언의 능력은 얻었으나 굿법을 몰랐다. 이른 일곱이 되어서야 굿을 하게 되었는데, 굿을 하는 도중 시왕수레법망에 걸려 삼시왕에 올라갔다. '시왕수레법망에 잡혔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는 죽었다는 것이다. 죽어서 삼시왕에 올라가 등장을 드리니, 삼시왕에서는 그녀의 정성을 저울여 백근을 채우게 되어서야, 약밥약술(藥飯藥酒)과 어인타인(御印打印)을 내리고 무당서(巫堂書) 삼천 권과 무구와 무악기를 내려 주었다. 이때부터 유정승 따님은 양반의 딸로서 팔자를 그려쳐 최초로 굿을 시작한 심방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심방이 되는 과정은 죽어서 신이 내리는 약밥약술을 먹고 심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데, 이는 사회적 통념으로는 '팔자를 그려치는 일'이기 때문에, 약밥약술(藥飯藥酒)은 비극적(悲劇的)인 입무의례(入巫儀禮)다.

2) 당주질치기

개인집의 큰곳에 가장 중요한 제차는 <시왕맞이>이며, <시왕맞이>를 하여, 집안의 죽은 영혼들의 길을 잘 닦아 저승의 상마음로 가서, 나비로 환생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러나 심방집에서 하는 신굿은, <시왕맞이>에서 집안 영혼들의 길을 닦아 저승으로 보낸 뒤, <당주연맞이>를 하여, 본주인 당주의 입무의례의 절차와 함께, 당주가 몸받은 조상, 즉 심방의 업을 물려준 조상의 길을 치워 닦고 삼시왕으로 보내는 <당주질침>을 한다. 심방이 죽어서 가는 삼시왕의 길을 치어 닦아 심방의 영혼을 삼시왕으로 보내는 절차다. 그러므로 <질치기>의 과정에서 처음에 거칠고 험한 길을 닦아 가는 과정은 <시왕질치기>와 같으나, 그 이후의 과정은 <초공본풀이>에 입각하여, 삼시왕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삼시왕 길을 바르게 닦아 가는 과정이 '신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이를 <당주질침> 또는 <삼시왕질침>이라 한다. 이는 본주 김윤수 심방의 수양 어머니 고군찬 심방 조상의 길을 치워 닦아 삼시왕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 과정이 초공본풀이에 근거하여 '신 길을 바로 잡는 과정'이다.

3) 곱은멧두

제주도의 신굿 <당주연맞이>에서, <곱은멧두>란 제차는 당클(祭棚) 속에 본주 심방의 멧두(明刀)를 숨겨 두고, 문점하고 굿을 하면서, 어렵게 멧두를 찾는 방법을 공론하고, 간신히 명도를 찾아 본주에게 내어 주는 의식이다. 여기서도 <곱은멧두질>의 '곱은'은 '숨은'의 뜻이므로, <곱은멧두>는 일종의 '신물 찾기'이다. 굿의 내용을 보면, 심방은 <초공본풀이>를 창(唱)해 나가다가, 명도(明刀)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연양당주 삼시왕길도 바르게 하자"하고, 그 명도를 "시왕전에 도올리자"하며, 안팎으로 춤을 추며, 신길을 쳐 나간다. 그러면 명도는 '시왕당클'에 숨겨지고, 심방은 소무와 함께 수수께끼 문답으로 잃어버린 명도를 그려 나가고, 결국은 잃어버린 명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낸다. 명도 찾기는 금정옥술발(搖鈴) → 금봉채(큰북채) → 개천문(開天門) → 북, 장고, 징, 설채 → 신칼 → 무복(巫服)을 찾는 순으로 진행된다.

심방은 굿에 필요한 본주의 명도(明刀)와 무복(巫服)을 잃어버리고, 신안(神眼)을 가진 점쟁이를 찾아가 문점(問占)을 하고, 그것이 세경땅 '시왕곶은연질'에 묻혔다는 것을 알아낸다. 심방은 세경신에게 명두를 찾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 세경신은 땅을 차지한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시왕(十王)을 차지한 아들에게 부탁을 하여 결국 잃어버린 명도(明刀)를 찾는다. 그리하여 안팎 명도를 모아 <쉐놀림굿>을 하고, 신길을 바로 잡는 굿이 <고분맹두>이다.

4. 신굿의 원리

신굿은 심방집에서 하는 큰굿이다. 사가에서 하는 큰굿인 4탕클굿(四祭棚祭)에, 초공본풀이를 굿본으로 하여, 신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심방으로 거듭 나게 하는 입무의례로서 삼시왕맞이 또는 당주맞이라고 하는 굿이 결합하여 신굿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신굿을 당주맞이 또는 삼시왕맞이로 부르기도 한다.

지금까지 신굿의 주요 제차인 당주연맞이의 <악밥약술> <당주질치기> <고분맹두> 등을 통하여 신굿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주도의 신굿은, 심방이 굿(巫業)을 하여 벌어먹은 역가를 신에게 바치는 역례이며 심방의 입사식으로서 입무 의례였다. 그리고 당주는 신굿을 행함으로써, 하신층으로, 또는 하신층에서 중신층으로, 또는 중신층에서 상신층으로 심방 사회에서 큰심방으로 공인 받는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경력 있는 큰심방들을 초빙하여 굿에 대한 토론의 기회, 차례차례 재차례 굿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의 대가로 바른 굿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며, 수심방의 계보 있는 명도를 가지고 굿을 행함으로써 당주의 신길을 바로 잡게 되어, 저승 삼시왕과 이승 삼하늘 그리고 심방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다목적 적이며 총체적인 굿이라 할 수 있겠다.

초공본풀이를 제대로 아는 심방은 본풀이의 후반부 양반 유정승 따님이 심방이 된 내력담과 굿법을 전수한 내력을 '굿본'으로 하여 이를 의례화한 <당주맞이>의 '굿법'을 아는 큰 심방이다.